

종합·해설

朴-李 '도곡동 땅' '위증교사 녹취록' 사활전 격돌

朴 “당서 후보사퇴 공론화해야”
李 “막가파식 흑색선전 중단을”

한나라당 경선투표를 4일 앞둔 15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측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경선전의 폭풍의 핵으로 떠오른 '도곡동 땅 차명 의혹'과 이 전 시장 관련 부정선거 위증교사 녹취록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15일 오후 여의도캠프에서 박근혜 후보측 홍사덕, 안병훈 공동 선대위원장과 강신욱 법률특보단장 등이 검찰의 도곡동 땅 문제와 김유찬씨 위증교사 CD 및 녹취록 내용 등 이명박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박 전 대표측이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전 시장을 퇴진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공론화를 공개 요구하고 나서, 오는 20일 후보 선출 전당대회 이후의 후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측은 '도곡동 땅 차명 의혹'을 제기한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는 한편, "막가파식 폭로공세를 중단하라"며 박 전 대표측을 맹비난했다.

김덕룡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무슨 흥신소나 점집처럼 '뉘뉘같이 보인다'는 식의 의혹부풀리기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검찰의 개입으로 당 경선이 매우 흔들리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검찰에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측근 권영옥씨가 김유찬 위증교사 했다”

주중탁씨, 권씨 녹취록 공개

(김유찬이) (5천만원용) 주중탁이 갖다 줬는데, 이광철(전 비서관)이 줬다고 착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김유찬씨가 돈을 건넨 사람만 주중탁이란 말을 했으면 지금 양상이 달라졌을 거야. 주중탁이 도망가더라도 잡혀, 잡혀서 그것만 밝혀졌어도 엠비(이 후보)가 다쳐"라고 말하기도 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 = 이 후보의 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1996년 9월 이 후보의 법정선거운용 초과지출 사실을 폭로했던 김유찬씨가 올 2월 재판회관에서 "당시 이 후보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측이 위증을 부탁하며 1억 2천여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국회 의원 시절 측근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신이 김유찬씨에게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후보의 의원 시절 종로 지구당 조직부장 주중탁씨는 15일 권영옥 전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이 위증교사를 했다는 내용이 든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은 이 후보의 의원 시절 측근들이 주씨와 권씨, 강상용 당시 지구당 기획부장이 지난 4월 소래포구의 한 회집에서 모였을 때 주씨가 녹음을 풀어 쓴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권씨는 "사실은 위증 교사 내가 가서 했잖아", "그 X

권씨는 김유찬씨 관련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등을 강씨와 주씨에게 설명하면서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

녹취록에는 또 주씨가 "김씨에게 5천만원을 건넸고 영수증을 받아 이광철씨에게 갖다줬다"고 말하자 강상용 기획부장이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돼있다. /연합뉴스

“선친 대신해 용서 받는다”

신기남의원, 독립운동가 차익환·김장릉씨 방문

범여권 대선 예비후보인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광복절인 15일 일제 때 헌병으로 복무한 선친 신상복씨로부터 취득받은 독립운동가 차익환(82)씨와 김장릉(81)씨의 자택을 차례로 방문, 선친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다.

당하신 데 대해 선친을 대신해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잘못된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씨는 이에 대해 "예전에 만났더라면 진작 서로 회포를 풀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제가 용서를 구하려고 왔다. 앞으로 아버님같이 모시겠다"면서 큰절을 한 뒤 "선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친의 잘못을 사죄하고 보상하는 의미에서라도 역사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고개를 숙인 뒤 김씨의 아들(49)에게도 "아버지 시대에는 역사의 아이러니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악수를 청했다.

李-朴 캠프 원로 오늘 회동

경선 막판 과열방지 등 논의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캠프에 소속된 당의 원로들이 경선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회동을 갖고 경선 막판 과열방지 등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15일 "확인 결과 원로인사 27명이 회동에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하겠다고 알려졌다"면서 "양 캠프를 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상임고문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 부의장과 김덕룡 의원,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과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千 “짜퉁 한나라에 기대 걸어서 안돼”

범여권이자 유일한 광주·전남 출신 대선 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15일 "역사를 거름할 12월 대선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광주와 호남은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 남구 구동 시민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전남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상당수가 지지하고 짜퉁 한나라당 후보에 기대를 거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인 천정배 의원이 15일 광주 남구 시민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주)223-1140, 5210 번 011-602-2532
(공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상생사거리-역)

무등공인중개사
(주)383-5221 번 011-609-5221
(상무지구 입구)

정우부동산
(주)675-4788-7 번 011-603-4788
(봉선동 한일병원부근)

첨단월계공인중개사
(주)972-4585 번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LC빌딩 사거리)

한일지도판매(주)
(주)9529-1409 상담 010-2466-1409 (전통527-6310, 011-9433-6310)
(광주시 동구 지산동 373-8 범일정문앞)

특급상가 매매·임대
북구 용봉동 무등 상가주택
대지72평, 연건평120평인 3층 코너 건물이 3억 8천만원이다.

BM公認仲介士事務所
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내놓으실때는 최소한 3개월전에 연락주시요.